

# 이주 러시아 난민의 경제적 영향: 중앙아시아의 사례 연구\*

박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문위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청년들은 징집령을 피하기 위해 인근의 중앙아시아로 대규모 이주를 했다. 그리고 이러한 이주는 경제적인 면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긍정적인 측면은 첫째로 이주를 감행한 청년들의 상당수가 IT 분야 엔지니어와 같은 고급 인재들의 비중이 높아, 이들의 유입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추진하는 IT 개발 분야에서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이들의 유입이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중 일부는 러시아와의 교역에 종사하면서 중앙아시아의 러시아에 대한 수출 증가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의 소비와 생산 부문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주의 부정적인 결과도 있는데, 이들이 대규모로 유입된 중앙아시아의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료 상승이 크게 일어났다. 또한, 일부 유입된 IT 전문가 등 전문적인 직종들이 현지 고급 일자리를 잠식하는 경우가 생겼다. 하지만, 부정적인 요인은 크게 부각되지 않고 빠르게 희석된 반면, 난민들이 지역에서 꾸준히 일하면서 창출하는 소비증대 효과와 각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추진하는 IT 발전 등 긍정적인 요인은 시간이 흐르면서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주제어** 러시아난민, 이주,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 I. 서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은 당사국과 주변국에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기존에 러시아를 중심으로 주변국으로 이동하던 상품이 동의 축은 이제 주변국을 통해 러시아에게 공급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러시아의 주변국들은 대(對)러 수출증가로 경제적 호황을 맞고 있다. 또한 인력의 이동 측면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많

\* 이 논문은 2023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C2A02096180).

\*\* nolmts@daum.net

은 러시아인이 자국을 떠나 주변국으로 이주하였다. 이들 중 대부분은 전쟁 발발로 인해 러시아에서 높아진 징집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주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주로 선택한 목적지는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과 튀르키예, 조지아, 아르메니아 등으로 튀르키예를 제외하면 모두 과거 소비에트권 국가에 포함된다. 소비에트권 국가들의 경우, 러시아어가 통용되며 러시아와 유사한 문화권으로 간주되어 러시아인들이 생활하기에 비교적 무리가 없다. 또한 이들 국가는 이탈한 러시아인들을 자국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국가 차원의 유치 정책을 내놓기도 하였다. 이들의 이주가 자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국가들은 지금까지 자국 국민들이 러시아에 노동을 위해 이주하여 현지에서 송금하는 자금으로 경제가 지탱되는 상황이었으나 이제는 반대로 러시아로부터의 역(逆)이주 상황을 맞으면서 다른 양상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인 유입국(host country)의 이러한 기대는 자국으로 이주하는 러시아인들이 ‘난민(refugee)’으로 통칭되는 ‘모국(home country)’으로부터의 비자발적 이주자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연합난민위원회(The UN Refugee Agency)에 따르면, ‘난민’은 박해나, 전쟁, 폭력으로 인해 자국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을 지칭하며 이들은 모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그렇게 하기를 두려워한다.<sup>1</sup> 이 같은 맥락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로부터 이탈한 사람들을 본 논문에서는 ‘난민’ 또는 ‘러시아 난민’으로 규정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 난민은 대체로 경제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모국을 떠나지만, 러시아에서 이탈한 난민들은 일반적인 난민에 비해 일정 수준의 경제력과 기술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러시아 난민의 이동이 유입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일반적인 난민의 유입으로 인한 영향과는 다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들의 경제력을 자국의 경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중앙아시아 유입국 국가들의 노력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제로 러시아를 이탈한 난민들이 중앙아시아 유입국

<sup>1</sup> “What Is a Refugee?” <https://unrefugees.org/refugee-facts/what-is-a-refugee/>(검색일: 2024. 1. 3.).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직 유입이 본격화된 지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아 경제적 영향을 두드러지게 분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이들의 경제적 영향이 유입국 거시경제 전반과 특정 산업 측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구분함으로써 경제적 영향의 특성을 좀 더 쉽게 식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러시아 난민이 중앙아시아 경제와 유라시아 경제 전반에 가져올 수 있는 변화를 가늠해 볼 것이다.

## II. 이주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와 러시아 난민

### 1. 선행연구: 난민 유입의 경제적 영향

난민의 유입이 경제적으로 유입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다양하다. 특히 장기적인 측면에서 유입국의 경제의 총생산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실증연구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중남미의 코스타리카에서 니카라과 출신의 망명자 및 난민들의 수는 2022년 기준 약 27만 명에 달하는 데 이들은 2017년부터 2021년 동안 코스타리카의 GDP 성장에서 약 6.5%의 직접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IMF, 2023). 알릭스-가르시아와 사(Alix-Garcia and Saah, 2010)의 탄자니아 경제에 부룬디와 르완다 난민의 유입이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국제기구의 식량 지원을 통해 일정 수준의 경제적 수준을 갖춘 난민의 유입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테일러 등(Taylor et al., 2016)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볼 수 있는데, 경제적 지원을 받은 르완다 난민의 캠프 인근 주민들은 실질 임금 상승에서 그렇지 않은 지역의 주민에 비해 눈에 띄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제력을 갖고 있는 난민의 유입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 준다.

특히, 이주민들은 모국과 이주국과의 교역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젠크(Genc, 2014)가 48개국에서 1994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한 실증연구에

서 이주자들은 모국 시장의 특성과 언어, 비즈니스 관행 등에 대한 우월적인 지식을 토대로 모국과 이주국과의 교역을 증대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10%의 이주민 증가는 1.5%의 교역량 증가를 가져온다는 점을 밝혀냈다.

스트라우허(Straubhaar, 2000)는 미국과 유럽이 고숙련 이민자의 유입(brain gain)을 통해 기술 발전을 해 왔으며 이주가 필요한 기술을 얻기 위한 인적자본 확보에 있어 중요한 수단임을 주장하였다. 파네스큐(Panescue, 2004)도 숙련된 인구의 이주(skilled migration)가 모국에서는 두뇌유출(brain drain)을, 유입국에는 두뇌유입(brain gain)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이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있다. 라킨 등(Larkin et al., 2018)은 대체로 이민이 유입지역의 주택가격을 상승시킨다는 연구결과를 14개국을 바탕으로 한 실증연구를 통해 입증한 바 있다. 코크레인과 풋(Cochrane and Poot, 2019)이 미국, 캐나다, 영국 등 8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증연구 결과, 이주로 인해 도시의 인구가 1% 증가하면 평균적으로 부동산 임대료는 0.5~1%의 상승 압력을 받으며 실제가격은 이보다 약 두 배 정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주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해당 지역의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이민자의 경제력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유입 인구의 증가와 주택가격의 상승은 정(+)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주자의 유입이 현지 노동자와의 일자리 경쟁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임금 하락을 초래한다는 연구도 있다. 카드(Card, 2001)는 1980년대 저숙련 중남미 노동자들 이민이 주요 미국 도시인 마이애미(Miami),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등의 노동자들과의 경쟁을 일으키며 현지인들의 고용을 1~3% 포인트 하락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음을 증명했다. 비셋(Viseth, 2020)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주민의 현지 노동력에 대한 대체성과 보완성이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기술인력(high-skilled employees)의 유입은 현지의 저기술인력(low-skilled employees)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저기술 인력의 유입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2. 러시아 난민의 중앙아시아 이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난민의 수는 정확한 집계 불가능하다. 다만, 이들 중의 상당수는 전쟁이 발발한 해당 연도인 2022년 이주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가운데 첫 번째 이주의 상당수는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주 규모는 10~20만 명 규모로 추산된다.<sup>2</sup> 이들 난민의 첫 번째 이주는 전쟁 발발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주로 IT 산업 종사자 등 기술력을 가진 인력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IT 업종은 산업 특성상 특정한 지역에서만 근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근무의 이동성이 높아 많은 러시아인들이 전쟁이 발발한 자국보다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하기를 원하였고 이는 해외 이주로 이어졌다. 이들은 러시아 내에서 이주자를 의미하는 ‘리로칸티(relocant)’로 불렸으며 기술력과 경제력을 골고루 갖춘 인력으로 평가되었다. 이들 가운데 약 14만 6,000명이 카자흐스탄에서 은행계좌를 개설하거나 직업을 구하는 데 필요한 개인식별번호(individual identification number)를 획득하였다.<sup>3</sup> 이들이 중앙아시아 지역을 이주 대상으로 삼은 주요 이유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러시아와 같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으로 노동 이주가 자유롭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같은 소비에트 국가로서의 사회·문화적 동질성도 이들의 유입에 영향을 주었다.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러시아에서 이탈하는 난민들을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2022년부터 ‘디지털 유목민 비자(виза цифрового кочевника)’ 제도를 도입하고 발급대상을 러시아를 포함한 EAEU 회원국과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국민들을 그 대상으로 국한하였다. 비자 발급이 가능한 개인의 자격 요건으로는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 로봇공학, 인공지능 분야의 설계, 개발, 프로그래밍에 종사한 사람으로<sup>4</sup> 이는 다분히 러시아의 난민을 수용하기 위한 의도로 계획된 것이었다.

<sup>2</sup> “Central Asia Faces a Russian Migrant Crisis,” <https://foreignpolicy.com/2022/10/04/russia-putin-mobilization-central-asia-constripts-flee/>(검색일: 2024. 1. 9.).

<sup>3</sup> “Kazakhstan Tightens Entrance Rules for Foreigners,” <https://caspiannews.com/news-detail/kazakhstan-tightens-entrance-rules-for-foreigners-2023-1-18-28/>(검색일: 2024. 1. 9.).

<sup>4</sup> “Кыргызстан - Виза цифрового кочевника,” [https://dzen.ru/a/Y9Z-k0K8pnQDZfF\\_](https://dzen.ru/a/Y9Z-k0K8pnQDZfF_)

EA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우즈베키스탄으로도 많은 러시아인들이 이주하였는데, 우즈베키스탄 정부도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IT 전문인력에 대한 3년간의 입국비자 제공 및 단순화된 거주 절차를 제공하였다.<sup>5</sup>

두 번째 러시아인들의 중앙아시아 이주는 첫 번째 난민 그룹과는 달리 러시아 내에서의 직접적인 징집령을 피해 이주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첫 번째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적 열위에 있는 사람들이며 주로 시베리아나 우랄, 극동지역의 작은 도시에서 징집령을 피해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경우가 많다. 러시아 정부는 2022년 9월 부분 동원령을 발표했는데 총 12만 명 규모로 모집되었으며 주요 징집 대상이 되는 지방의 많은 청년들이 이를 피해 해외로 이주했다. 이들은 동원령이 본격화되어 전쟁터로 강제로 징집되기 이전에 러시아를 떠난 사람들이다. 이들 중 다수는 동원령 통지를 받고 곧바로 자국을 떠나기로 결정하였으며 국경을 통해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는 행렬이 너무 길어, 많은 사람들은 타고 온 차량을 버리고 도보로 카자흐스탄 국경을 건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sup>6</sup> 가족과 함께 이동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상당수의 남성들은 러시아에 가족을 두고 혼자 이주했다. 이 시기에 러시아를 떠나 해외로 이주한 남성의 수는 약 1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나 실제 이주 인구는 그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주 인구의 약 절반 정도는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러시아중앙은행(Central Bank of Russia)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러시아에서 자금을 해외 계좌로 이전한 금액은 3조 루블(약 42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전 연도의 연간 유출 금액인 약 3,800억 루블에 비하면 폭증한 금액인 것을 알 수 있다(ICMPD, 2023). 즉, 러시아에서 해외로 이주한 난민의 경우, 기존의 일반적인 난민과는 달리,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을 갖춘 집단으로서 전쟁 상황인 러시아에서의 업무 환경이나 징병을 회피하기 위한 자발적인 이주로 볼 수 있다.

?experiment =931375(검색일: 2024. 1. 9.).

<sup>5</sup> "Uzbekistan lays out the red carpet for fleeing Russian IT specialist," <https://eurasianet.org/uzbek-stan-lays-out-red-carpet-for-fleeing-russian-it-specialists>(검색일: 2024. 1. 10.).

<sup>6</sup> "Russia's Great Reverse Migration," <https://foreignpolicy.com/2022/11/25/russia-uzbekistan-kyrgys-stan-putin-mobilization-great-reverse-migration>(검색일: 2024. 1. 17.).

이처럼 러시아 청년층의 대량 이주는 러시아로서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러시아는 소비에트 체제 붕괴 이후 지속적인 인구 감소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2018년 자국으로의 인구 유치 계획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9~2025 러시아연방 이민정책 개념(О Концеп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мигр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2019-2025 годы)”을 발표한 바 있다.<sup>7</sup> 이 개념은 주로 러시아로의 고급 인력 유치와 일부 저숙련 노동자의 입국 규제를 기본 개념으로 채택한 것이었다. 하지만, 러시아로부터의 자국 인구 유출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정부는 2023년 5월 개정된 이민정책 개념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인구 유출을 줄이기 위한 매력적인 사회적,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러시아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만이 갖게 되는 법적 관계에서의 보장 등을 담았다.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내용을 보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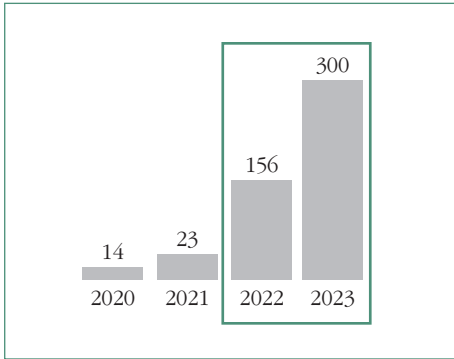
이와 같은 러시아 인구의 중앙아시아 이주는 소비에트 해체 이후 줄곧 계속되었던 중앙아시아 노동자의 러시아 이주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이다. 오랜 기간 동안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노동자들은 러시아로 이주하여 노동하고 그 임금을 자국으로 송금하는 경제구조를 이루어 왔으나 러시아 노동자들의 대(對) 중앙아시아 이주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

### III. 러시아 난민 유입의 긍정적 기대 요인

#### 1. 두뇌 유입(brain g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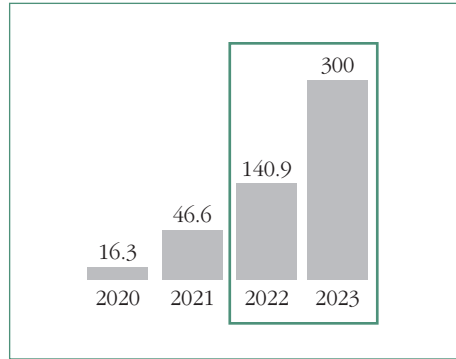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것처럼 러시아에서 전쟁 초기에 이탈한 많은 난민들은 IT 전문

<sup>7</sup>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31 октября 2018 г. No. 622, “О Концеп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мигр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2019-2025 годы,” [https://garant.ru/product/s/ipo/doc/71992260/\(검색일: 2024. 1. 17.\)](https://garant.ru/product/s/ipo/doc/71992260/(검색일: 2024. 1. 17.)).



출처: “IT Park Statistics,” <https://centralasia.tech/why-uzbekistan/statistics>(검색일: 2024. 1. 24.).

그림 1 테크노파크 내 외국계 IT 기업 수(개)



출처: “IT Park Statistics,” <https://centralasia.tech/why-uzbekistan/statistics>(검색일: 2024. 1. 24.).

그림 2 테크노파크 내 IT 기업 수출금액(백만 달러)

가 집단이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문가 집단의 유입은 중앙아시아 국가들로서는 자국 입장에서 상당한 수준의 엘리트 집단이 이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 가운데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러시아 IT 전문가 집단의 이주로 인해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자국의 IT 산업 육성을 위해 2019년 7월 수도인 타슈켄트에 IT 산업과 관련한 기업과 스타트업의 육성을 위해 ‘IT 테크노파크(IT Technopark)’를 개소한 바 있다. 개소를 위해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규정한 테크노파크의 성격을 보면 초기부터 이 테크노파크는 인도와의 IT 협력을 염두에 두고 조성되었다(Министр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2019). 이는 2018년 미르지요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인도 방문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바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테크노파크에서 외국계 기업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2022년부터이다.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14개와 23개에 불과했던 테크노파크 입주 외국계 IT 기업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러시아로부터의 IT 인력 입국이 본격화되면서 2022년 156개, 2023년에는 300개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입주한 IT 기업의 해외수출도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1억 4,090만 달러와 3억 달러에 달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는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

한 러시아 난민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평가되고 있다.<sup>8</sup> 유입된 러시아 난민들은 개별적인 자격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입국한 경우도 있으나 기업 차원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회사를 이전하여 집단적으로 이주한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러시아의 IT서비스 기업인 ‘이팜시스템(Epam System)’으로, 이 기업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2022년 2월 이후 약 600명의 자사 러시아 직원을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시켰다.<sup>9</sup>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한 많은 러시아인들 역시 카자흐스탄 지역 사회에서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의 직업은 의사, 교사, 컴퓨터 전문가 등 전문직 종사자가 많으며 현지에서 쉽게 일자리를 찾고 있다.<sup>10</sup> 카자흐스탄 동부 아바이(Abai) 지역의 한 병원에서는 인센티브로 주택을 제공하면서, 러시아인 의사들에게 20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구인광고를 게재하기도 했으며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국경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에너지 개발 산업위주의 성장전략을 추진해 온 카자흐스탄은 국가차원의 인적자원 개발에 매우 적극적이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된 1차 국가 교육개발 프로그램과 이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이행 중인 2차 프로그램 모두 교육의 질 개선, 도시와 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디지털 및 ICT 교육 강화 등의 방안을 담고 있어 러시아로부터의 고급 기술자 이주는 이런 측면에서 국가 인적자본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European Training Foundation, 2020). 다만,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이주한 러시아인들을 인적자산으로 보는 경향은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22년 11월에 카자흐스탄의 17개 도시에서 1,11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27%만이 러시아인의 이주를 지지했는데, 이 가운데 8%만이 그들을 국가의 인적자원으로 간

<sup>8</sup> “How thousands of highly-skilled Russians support Uzbekistan’s bid for technology development,” <https://bne.eu/how-thousands-of-highly-skilled-russians-support-uzbekistan-s-bid-for-technology-development-202099/?source=uzbekistan>(검색일: 2023. 1. 25.).

<sup>9</sup> “ИТ-гигант созданный выходец из СССР, переманивает у России ИТ-шников и вывозит их в Узбекистан,” [https://cnews.ru/news/top/2022-04-19\\_sozdanniy\\_vyhodtsem\\_iz\\_cccp](https://cnews.ru/news/top/2022-04-19_sozdanniy_vyhodtsem_iz_cccp)(검색일: 2024. 1. 30.).

<sup>10</sup> “Living in Fear of the Draft, Russian Emigres in Kazakhstan Have No Plans to Go Home,” <https://rferl.org/a/kazakhstan-russian-emigres-ukraine-war/32234453.html>(검색일: 2024. 1. 30.).

주하고 향후 그들을 통해 부족한 분야의 인력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보았다.<sup>11</sup> 대부분의 이주 지지자들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최근 러시아 난민 유입을 규제하는 입법을 강화하기도 했다. 기존에 비교적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었던 EAEU 회원국 국민에 대해 고용계약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1년에 90일 이상 머물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하였다. 이는 정부가 국내 여론을 의식해 개정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인적자원 유입에 따른 기대 요인은 카자흐스탄 정부 내부적으로 여전히 유효하다.

키르기스스탄 역시 중앙아시아 국가로서 지속적으로 두뇌유출을 겪어 왔다. 자국 내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유능한 청년층은 러시아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 난민의 이주는 이전의 상황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에서 키르기스스탄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로 IT 관련 전문가인 것으로 파악된다. 주로 러시아나 벨라루시 등에서 이주한 IT 기업들은 비쉬켅(Bishkek)에 위치한 하이테크놀로지파크(High Technology Park)에 입주했는데, 이 시설의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입주가 키르기스스탄의 IT 부문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미 2022년 상반기에만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하이테크놀로지파크의 매출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언급하였다.<sup>12</sup> 여기에는 70개 이상의 러시아 기업이 입주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이 향후 국내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러시아 난민 이주가 많은 중앙아시아 3개국은 이들의 이

<sup>11</sup> “Poll: The main share of Russian supporters in Kazakhstan is over 60, young people are for Ukraine,” <https://demos.kz/poll-the-main-share-of-russian-supporters-in-kazakhstan-is-over-60-young-people-are-forukraine/?lang=en>(검색일: 2024. 1. 30.).

<sup>12</sup> “В Кыргызстан с марта переехали более 50 IT компаний из России, Беларуси и стран СНГ,” <https://economist.kg/novosti/2022/10/03/v-kyrgyzstan-s-marta-relocirovalis-bole-50-it-kompanij-iz-rossii-belarusi-i-stran-sng/>(검색일: 2024. 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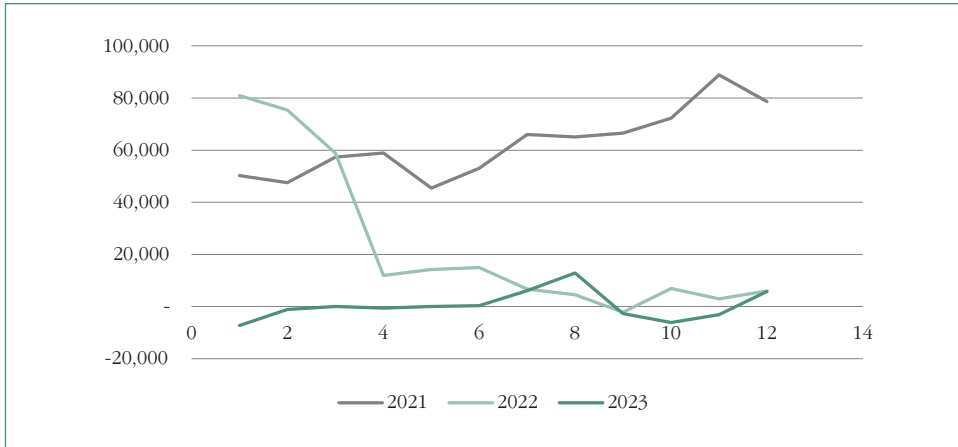
주로부터 ‘두뇌유입’이라는 핵심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 장기간의 교육을 바탕으로 한 인력육성을 통해서만 기대할 수 있는 결과를 난민 유입이라는 현상을 통해 단기간에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2022년의 대규모 이주 이후에 이들이 중장기적으로 각 국가의 산업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그들의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2. 경기 활성화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초기에, 많은 연구자들은 중앙아시아 경제가 이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간의 밀접한 경제적 관계로 인해, 러시아 경기의 하락이 곧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교역이나 노동이주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견해였다. 하지만, 실제로 러시아 경제가 예상보다 제재에 무너지지 않으면서 중앙아시아 경제도 곧 안정화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인들의 유입은 중앙아시아 각 국가의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러시아로부터의 난민 유입은 단순한 인력의 이동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기업과 소유한 재화 역시 유입됨을 의미하였다. 특히, 러시아에서 수출입 업무를 하는 기업들은 경제제재로 인한 송금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해외로 기업을 이전하여 송금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ADB, 2023). 이러한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중앙아시아로의 기업과 인력의 이동, 그리고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카자흐스탄으로 러시아 난민의 유입이 급증함에 따라, 중앙은행의 러시아 루블화 매입은 2022년 3월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루블화 매입 증가는 그만큼 카자흐스탄 텡게화가 시중에 많이 유통되게 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경기활성화 측면에서는 유통 통화량 증가를 통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이다.

그림 3에서 보듯이, 2021년과 2022년 2월까지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시장에서 러시아 루블을 주로 매각하는 입장이었다. 시장에 루블화의 수요가 많았다는 의미이며 월별로 최소한 470~880억 텡게까지 지속적으로 루블화를 매각



주: 세로축의 단위는 '백만 텡게'로 금액이 클수록 루블화 매각이, 작을수록 매입이 증가하였음을 의미.  
출처: National Bank of Kazakhstan, "Purchase/Sales of Foreign Currency by Exchange Offices."

그림 3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의 러시아 루블 매입(-) 및 매각(+) 추이: 2021~2023년

해 왔다. 그러나 러시아 난민의 유입이 본격화된 3월 이후, 자국 루블화의 매각보다는 자국 텡게화의 시중 수요가 확대되는 루블화 매입이 크게 증가해 왔다. 2023년 기준으로는 이미 6개월 정도는 루블화 매입이 더 크게 나타나는 상황이며 시중에서 텡게화의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시중에 유통된 텡게화는 카자흐스탄의 소비 수요를 확대하여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통화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앙아시아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러시아에 대한 수출물량 확대다. 중앙아시아 각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 러시아와의 교역에서 대체로 적자를 보여 왔다. 소비에트 시대부터 이어져 온 러시아 중심의 공급망 체계가 워낙 강했기 때문이며 이는 카자흐스탄 및 키르기스스탄과 같은 EAEU 회원국들도 동일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제재가 본격화되자 상품을 직접 수입하기 어려운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상품 수입을 확대해 나갔다.<sup>13</sup> 2022년 기준, 전년대비 각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러

<sup>13</sup> 서방은 대(對) 러시아 경제제재 가운데 수출규제를 도입하여, 전쟁물자로 전용될 수 있는 주요

시아에 대한 수출 증가율을 보면, 카자흐스탄 25%, 키르기스스탄 151%, 타지키스탄 22%, 우즈베키스탄은 53%에 달한다(ADB, 2023). 수출이 증가된 품목을 들여다보면, 러시아가 서방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품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 국가들에서 해당제품과 관련한 산업생산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제조업 발전 추세가 미미하다는 점을 보면 수출증가에 기여한 것은 서방의 대(對)러 수출통제 품목임을 추론할 수 있다(박지원, 2023). 그리고 이처럼 러시아와의 수출에는 러시아로부터 유입된 난민들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이들은 러시아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면서 해외로부터 상품을 수입해 러시아에 재수출하는 사업에 상당수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 사회의 경기활성화와 관련하여 러시아 난민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요인은 이들의 소비다. 앞선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민자의 증가는 소비로 유발된 생산효과를 증대시킨다. 현재 각 중앙아시아 국가로 유입된 러시아 난민들의 정확한 숫자는 물론, 이들의 총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정량적인 데이터로 산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들의 유입으로 인해 각 국가별로 소비가 확대됨에 따라 일정 수준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러시아 난민들은 중앙아시아로 이주하여 소비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정 부문의 서비스를 유발시키는 효과를 낳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sup>14</sup> 이처럼 새로 부각된 수요는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을 활발하게 하며 경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상품에 대한 품목의 수출을 제한해 왔다. 여기에 포함되는 물품으로는 반도체, 전자장비 및 기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기계류 등이 있으며 이 품목들은 러시아가 서방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것들이다. 직접적인 상품 수입루트가 막힌 러시아는 주변국인 중앙아시아 및 아르메니아, 조지아와 같은 유라시아 국가들을 통해 이 같은 상품을 수입하는 방식을 유지해 오고 있다.

<sup>14</sup> “Central Asia Economies Are Booming Thanks to Russia: Here’s Why,” <https://euronews.com/business/2023/10/04/central-asian-economies-are-booming-thanks-to-russia-heres-why>(검색일: 2024. 2. 27.).

## IV. 러시아 난민 유입의 우려 요인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러시아 난민의 유입은 전반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발전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반대로 아직까지 크게 부각되지는 않고 있으나 우려를 낳는 요인도 분명 존재한다.

### 1. 부동산 가격 상승

러시아 인구의 유입으로 인해 현지에서 가장 우려를 낳고 있는 요인은 물가 상승이다. 갑작스러운 대량의 인구 유입은 중앙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한정된 자원의 수요를 크게 발생시키며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 러시아인들의 이주로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것은 국제항공권 가격이다. 러시아에서 동원령이 발효된 첫날 모스크바에서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또는 키르기스스탄의 비쉬켄까지 가는 항공권 가격은 평소에 비해 10배 이상 급등했으며 모스크바에서 타지키스탄의 두산베(Dushanbe)까지 가는 항공권은 최대 1,750달러까지, 모스크바에서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Tashkent)까지 운행하는 편도 항공권은 1만 달러까지 급등했다.<sup>15</sup> 다만, 이와 같은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잦아들었고 항공권 가격은 정상화되었다.

여러 가지 물가 상승의 항목 중에서 중앙아시아 각 지역의 현지인들이 빠르게 체감하는 영역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다. 경제력이 있는 러시아 인구들은 이주한 중앙아시아의 각 도시에서 거주할 곳을 찾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인해 해당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러시아인 유입이 많았던 알마티(Almaty)를 포함해 러시아와 인접한 북부지역 도시의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 악타우(Aktau)가 67.7%, 파블로다르(Pavlodar) 44.1%, 악토베(Aktobe)와 코스타나이(Kostanai)도 각각 61.0%와

<sup>15</sup> “Inflow of Russians to Central Asia: Prices Rise, No Apartments for Rent,” <https://cabar.asia/en/inflow-of-russians-to-central-asia-prices-rise-noaprtments-for-rent>(검색일: 2024. 3. 6.).

표 1 카자흐스탄 주요 도시의 부동산 매매가격 변화: 2021~2024 (가격: 텡게/평방미터)

지역(도시)	2021.1. 가격	2024.1. 가격	증감률(%)
알마티	468,400	721,638	54.1
아스타나	357,125	476,534	33.4
악타우	191,875	321,842	67.7
שמ켄트	312,875	420,780	34.5
카라간다	287,825	383,012	33.1
파블로다르	255,650	368,458	44.1
악토베	178,800	287,840	61.0
코스타나이	253,825	371,008	46.2
크질로르다	156,625	239,144	52.7
콕셰타우	263,575	306,542	16.3

출처: krisha.kz.

46.2%씩 상승했다. 이 지역은 러시아와 인접해 있고 다른 지역보다 러시아인의 거주 인구 비중이 높아, 러시아 난민 유입이 크게 나타났던 곳이다. 반면, 대도시에 속하지만 שמ켄트(Shimkent) 같은 남부지역이나 콕셰타우(Kokshetau)처럼 카자흐인의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의 경우 러시아 난민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지역 부동산 가격에 대한 영향도 적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키르기스스탄에서도 부동산 가격은 상승했으나 카자흐스탄에서의 상황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부작용이 나타났다.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한 러시아인들은 대체로 현지의 부동산을 구매했으나 키르기스스탄으로 이주한 러시아 난민들은 주택을 구입하기보다는 대체로 임대하는 쪽을 선택했다.<sup>16</sup> 러시아 난민들은 비쉬켈이나 오쉬(Osh)로 이주하면서 주로 이곳의 아파트를 위주로 임대를 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임대시장에서 수요의 급격한 상승을 불러일으켰다. 러시아 난민들은 도시의 특정 지역에 관계없이 아파트가 생활하기에 필요한 옵션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고 주택을 임대했으며 2022

<sup>16</sup> “Почему в Кыргызстане дорожает недвижимость?,” <https://rus.azattyk.org/a/32618745.html>(검색일: 2024. 3. 14.).

년 9월 기준으로 임대가격은 이전에 비해 평균 30~40% 상승했다.<sup>17</sup>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키르기스스탄 주민들이며 특히 세입자에게 고스란히 그 영향이 전가되고 있다. 이전부터 아파트에 월세를 내며 살고 있던 키르기스스탄 주민들은 집주인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살던 곳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집주인들은 높은 월세를 지불하는 러시아 난민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키르기스 주민들에게 통지를 하고 급하게 이들을 퇴거시켰다.

문제는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이러한 사태에 전혀 개입하거나 중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현지인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이다. 키르기스스탄 재무부 산하 독점금지국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부동산 시장은 참여하는 주체들 스스로 결정하는 경쟁시장으로 정부는 이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언급하는 등 사실상 사태를 방관하였다.<sup>18</sup> 임대 기간이 충분히 남은 세입자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아 마땅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집주인으로부터의 일방적인 퇴출 통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수도인 비슈켄은 다른 중소형 지방 도시와는 달리, 주거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수용할 만한 임대주택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퇴거한 세입자들은 별 다른 해결책이 없었다.

이 같은 문제는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비슷한 모습으로 발생했다.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로 러시아 난민들이 집중적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자, 타슈켄트의 부동산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2022년 타슈켄트 지역의 부동산 매매가격은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약 20% 상승했으며 임대료는 17% 상승했는데 정부는 여기에 러시아 난민의 유입 증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sup>19</sup>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Uzbekistan)에 따르

<sup>17</sup> “Арендаа квартир в Бишкеке подорожала как минимум на 30%. Некоторые арендодатели выселяют местных граждан чтобы сдать жильё россиянам дороже.” [https://holod.media/2022/09/27/arenda-kvartir-v-bishkeke-podorozhala-na-30-100-nekotorye-arendodateli-vyselyayut-mestnyh-grazhdan-chtoby-sdat-zhile-rossiyanam-dorozhe/#\(검색일: 2024. 3. 14.\)](https://holod.media/2022/09/27/arenda-kvartir-v-bishkeke-podorozhala-na-30-100-nekotorye-arendodateli-vyselyayut-mestnyh-grazhdan-chtoby-sdat-zhile-rossiyanam-dorozhe/#(검색일: 2024. 3. 14.)).

<sup>18</sup> “Арендаа квартир в Бишкеке выросла почти на треть,” <https://akchabar.kg/ru/article/ndevizh-imos/arenda-kvartir-v-bishkeke-vyroslo-pochiti-na-tret/>(검색일: 2024. 3. 14.).

<sup>19</sup> “Цены на жильё в Ташкенте выросли с начала года почти на 20%,” <https://uz.kursiv.>

면, 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 우즈베키스탄의 중간 가격대 아파트의 임대료는 각각 전월 대비 8.6%, 7.7%, 15.2% 상승하였으며 여기에는 러시아 난민들의 입국 증가가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Центральный банк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2023). 그리고 키르기스스탄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난민의 입주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인들은 거주하던 집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쫓겨나는 일이 계속되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논평을 통해 특별한 근거가 없는 주택소유자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나 부당한 임대료 인상 행위는 불법이라고 강조하였다.<sup>20</sup> 다만, 이와 같은 부동산 임대료 상승은 러시아 난민의 입국이 둔화된 2022년 11월 이후로는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후에는 우즈베키스탄의 부동산 매매가격과 임대료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2. 현지인들과의 일자리 경쟁

러시아인들의 이주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카자흐스탄 내에서 이들의 이주에 따른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카자흐스탄인들이 노동시장에서 러시아인들에 의해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스마일로프(Alikhan Smailov) 카자흐스탄 총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점에 대해 이렇게 인정했다. “IT분야, 금융, 무역 등 러시아 이주민들의 유입이 늘어나는 산업 분야에서 카자흐스탄인들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이주하는 러시아인들의 업무 수행 수준이 카자흐스탄인들과 비교해 높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이고, 이미 러시아인을 고용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인을 해고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일을 방지하고 카자흐스탄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sup>21</sup> 또한, 카자흐스탄의 쿠안티로프(Alibek Kuantyrov) 경제부 장관은 러시아인들의

media/2022-11-23/ceny-na-zhile-v-tashkente-vyrosli-s-nachala-goda-pochti-na-20/(검색일: 2024. 3. 14.).

<sup>20</sup> “Миңиүст потребовал не нарушать права арендаторов съёмного жилья,” <http://spot.uz/ru/2022/10/11/rent-wawrning>(검색일: 2024. 3. 14.).

<sup>21</sup> “Потснят ли казахстанцев на линке труда приезжие россияне,” <https://caravan.kz/news/pot-esnyat-li-kazakhstancev-na-gynke-truda-priezzhie-rossiyane-885918/>(검색일: 2024. 3.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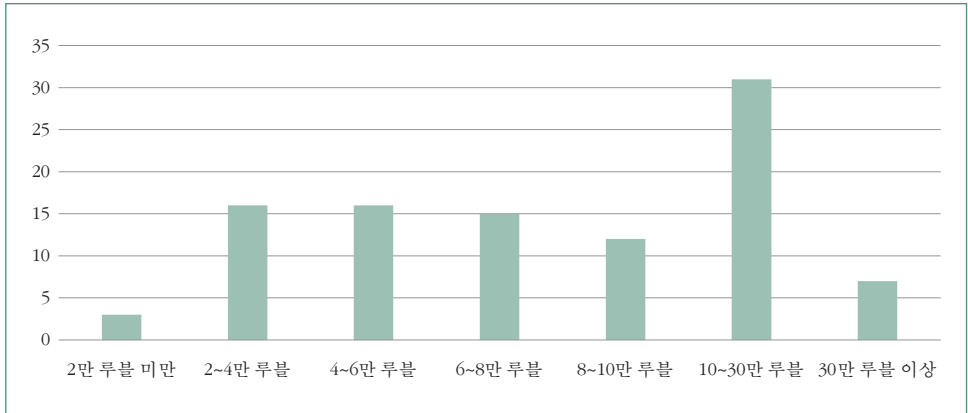
유입에 대한 일부의 우려에 대해 “카자흐스탄 내의 정부 부문이나 국영기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의 경우, 카자흐스탄인들이 우선적으로 고용될 것”이며 “일부 카자흐스탄인들의 공백이 생기는 민간 부문에서 러시아인들의 고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sup>22</sup> 이들이 우려한 것처럼 일부 지역과 산업 부문에서 이주한 러시아인들로 인해 카자흐스탄인들의 일자리가 위협받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2022년도 중반까지 카자흐스탄에서 대두되었던 러시아 난민과 카자흐스탄인들의 일자리 경쟁이라는 이슈가 정작 9월에 있었던 러시아 이주민들의 대량 유입 이후에는 실제적인 문제로 크게 부각 되지 않았다. 이는 실제 통계로도 추측이 가능한데, 카자흐스탄 통계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카자흐스탄의 실업률은 4.9%로 2021년과 동일했으며 15세부터 28세까지의 청년실업률 또한 전년도와 동일한 3.8%를 기록했다(Бюро Национальной Статистики Казахстан, 2023). 러시아의 주요 이주 연령대인 청년층의 유입이 카자흐스탄의 여러 도시 및 다른 국가로 분산되었고, 이들이 주로 IT산업 등의 고부가가치 영역에서 근무하고 있어 카자흐스탄인들과의 일자리 경쟁에서 직접적인 충돌이 적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도 카자흐스탄과 상황은 유사하다. 러시아 난민의 이주로 인해 현지인들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는 일부 존재했다. 특히 러시아인들의 유입이 많은 IT분야에서 우즈베키스탄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았다는 견해도 있다.<sup>23</sup> 이러한 견해는 특히 러시아 난민들의 이민 초기에 일부에서 제기되었던 주장으로 보인다. 우즈베키스탄의 헤드헌터 업체가 러시아 난민들의 입국이 집중되었던 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입수한 난민들의 이력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대체로 고등교육을 받은 IT전문가, 영업·마케팅·생산 부문의 관리직 등 전문가들이었으며 이들이 원하는 급여 수준은 일반적으로

<sup>22</sup> “Нормальная практика: Куантыров о влиянии переехавших в Казахстан россиян на рынок труда,” <https://nur.kz/politics/kazakhstan-economy/1990021-normalnaya-praktika-kuantyrov-o-vliyanii-perechavshih-v-kazahstan-rossiyan-na-rynok-truda/>(검색일: 2024. 3. 21.).

<sup>23</sup> “Как устраиваются на работу иностранцы в Узбекистане,” <https://hook.report/2022/05/work-in-uzbekistan/>(검색일: 2024. 3. 27.).



출처: “<<Заоблачные суммы для узбекского рынка>>. где работают и сколько получают россияне в Узбекистане,”

그림 4 러시아 난민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원하는 월 급여 수준(비중, %)

우즈베키스탄의 급여 수준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다.<sup>24</sup>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난민의 31%는 10~30만 루블 수준의 급여를 원하는데 이는 당시 우즈벡 솜(som)화 환율로 약 1,600~4,800만 솜에 해당되며 이는 달러로 1,270~3,810달러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직군에 따라 어느 정도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2~4만 솜(약 254~508달러)이나 그 이하의 급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 러시아 난민은 19% 정도에 불과했다. 이러한 러시아 난민의 높은 눈높이 수준으로 인해 이들이 우즈베키스탄인들의 일자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는 많지 않았으며 러시아 난민들은 계약직으로 고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키르기스스탄은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보다 현지 임금 수준은 더 낮다. 이런 이유로 실제로 러시아에서 키르기스스탄으로 이주한 난민들이 현지인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일부 키르기스스탄으로 이주한 IT 전문가들은 현지의 외국계 기업에 고용되는 경우가 많아, 키르

<sup>24</sup> “<<Заоблачные суммы для узбекского рынка>>. где работают и сколько получают россияне в Узбекистане,” <https://uz.kursiv.media/2023-02-09/zaoblachnye-summy-dlya-uzbekskogo-rynka-gde-nabotayut-i-skolko-poluchayut-rossiyane-v-uzbekistane/>(검색일: 2024. 3. 27.).

기스스탄 현지인들과 일자리 경쟁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sup>25</sup> 특히 키르기스스탄의 공공부문 일자리에선 키르기스어의 사용이 필수적이어서 러시아인들의 지원이 어렵고 민간의 키르기스스탄 회사에서는 러시아 난민들이 언제든지 다시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 러시아 난민들을 고용하는 데 주저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키르기스스탄에서도 러시아 난민들이 현지인들의 구직활동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 난민들의 중앙아시아 현지인과의 일자리 경쟁 문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IT 등 일부 고임금 직업과 관련해 이들의 이주 초기인 2022년도에 발생한 문제로 파악된다.

## V. 결론: 러시아 난민 이주의 경제적 시사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야기된 러시아인들의 대(對) 중앙아시아 이주는 지역의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시장경제 도입 이후 주로 중앙아시아 국민들의 러시아에 대한 노동이주와 송금경제 구도를 역(逆)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정치·군사적 이벤트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러시아로부터 중앙아시아에 대한 난민의 이주 흐름은 지역 경제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이는 대체로 긍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는 러시아 난민이 주로 IT 엔지니어와 같은 고급 인재들의 비중이 높아, 이들의 유입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추진하는 IT 개발 분야에서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금까지 중앙아시아가 겪었던 두뇌유출 현상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이미 이들의 유입으로 인한 효과는 산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둘째로는 이들의 유입이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난민들의 일부는 러시아와의 교역에 종사하면서 중앙아시아의 러시아에 대한 수출 증가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의 소비와 생산 부문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들의 유입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도 볼 수 있다. 먼저 러시아 난민들의 유

<sup>25</sup> “Понаехали тут: аналитик из Киргизии рассказал об отношении к Гражданам РФ,” <https://regnum.ru/article/3717430>(검색일: 2024. 4. 2.).

입은 지역 부동산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왔다.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와 북서부 지역의 난민 유입이 많은 도시들과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키르기스스탄의 비슈켈 등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료 상승이 크게 일어났다. 이 때문에 현지인들이 임대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 기존의 세입자를 불법적으로 내쫓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단기간에 공급이 제한적인 지역의 부동산에 갑작스럽게 많은 난민들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영향은 오래가지 않았고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난민유입의 두 번째 부정적인 영향으로 일부 난민들이 현지인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특히 러시아에서 대거 유입된 IT 전문가 등 전문적인 직종들이 현지 고급 일자리를 잠식하는 경우가 생겼다.

다만, 러시아 난민의 전반적인 경제적 영향은 국가별로도 각 지역과 도시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부정적인 요인은 크게 부각되지 않고 빠르게 희석된 반면, 난민들이 지역에서 꾸준히 일하면서 창출하는 소비증대 효과와 각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추진하는 IT 발전 등 긍정적인 요인은 시간이 흐르면서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러시아 이주 난민들이 중앙아시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단순히 난민의 이주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전쟁 자체의 발발로 인한 요인들이 얼마간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는 점과 그 영향을 엄밀히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이 연구의 한계로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러시아의 징병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음에 따라 러시아 난민 가운데 약 2/3가 다시 러시아로 돌아갔다는 러시아 정부 관계자의 추산이 발표되고 있다. 다만, 중앙아시아 내에서 이로 인한 난민 유출의 부정적인 영향은 아직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현재 자국으로 유입된 러시아 난민들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이들을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이들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도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투고일: 2024년 6월 8일 | 심사일: 2024년 7월 13일 | 게재확정일: 2024년 7월 31일

## 참고문헌

- 박지원. 2023.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라시아 지역의 교역 메커니즘 변화』, 서울: KOTRA.
- Бюро Национальной Статистики. Казахстан. 2023. “Основные индикаторы рынка труда в Республике Казахстан» Занятость и безработица.”
- Министр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2019. “О мерах по созданию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парка программных продуктов 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НБДЗ: No 09/19/17/2456.
- Центральный банк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2023. “АНАЛИЗ РЫНКА НЕДВИЖИМОСТИ IV КВАРТАЛ 2022 Г.”
- Alix-Garcia, J. and D. Saah. 2010. “The Effect of Refugee Inflows on Host Communities: Evidence from Tanzania.” *World Bank Economic Review* 24(1), 148-170.
- ADB. 2023. *Asian Development Outlook*. Philippines: ADB.
- Card, D. 2021. “Immigrant Inflows, Native Outflows, and the Local Labor Market Impacts of Higher Immigration.” *Journal of Labor Economics* 19(1), 22-64.
- Cochrane, B. and J. Poot. 2019. “The Effects of Immigration on Local Housing Markets.” *Working Paper in Economics* 7(19), 1-26.
- European Training Foundation. 2020. “Policies for Human Capital Development: Kazakhstan.” [https://www.etf.europa.eu/sites/default/files/2020-11/06\\_trp\\_etf\\_assessment\\_2019\\_kazakhstan.pdf](https://www.etf.europa.eu/sites/default/files/2020-11/06_trp_etf_assessment_2019_kazakhstan.pdf) (검색일: 2024. 3. 5.).
- Genc, M. 2014. “The Impact of Migration on Trade.” <https://wol.iza.org/articles/impact-of-migration-on-trade/long> (검색일: 2024. 2. 6.).
- IMF. 2023. “Characteristics and Economic Impact of Migrants and Refugees in Costa Rica.” *IMF Staff Country Reports* Vol. 2023, Issue 443
- ICMPD. 2023. “ICMPD Migration Outlook: Eastern Europe and Central Asia.” <https://www.icmpd.org/file/download/59451/file/ICMPD%2520Annual%2520Report%25202022%2520Digital%2520Version.pdf> (검색일: 2024. 3. 11.).
- Larkin, M. et al. 2018. “Do House Prices Sink or Ride the Wave of Immigration?” <https://www.econstor.eu/bitstream/10419/180515/1/dp11497.pdf> (검색일: 2024. 2. 14.).
- Panescue, C. A. 2004. “Brain Drain and Brain Gain: A New Perspective on Highly

- Skilled Migration.” [http://pdc.ceu.hu/archive/00003399/01/brain\\_drain\\_brain\\_gain.pdf](http://pdc.ceu.hu/archive/00003399/01/brain_drain_brain_gain.pdf) (검색일: 2024. 2. 2.).
- Straubhaar, T. 2000. “International Mobility of the Highly Skilled: Brain Gain, Brain Drain or Brain https://www.econstor.eu/bitstream/10419/19463/1/88.pdf (검색일: 2024. 1. 29.).
- Taylor, J. E. et al. 2016. “Economic Impact of Refugees.” <https://www.pnas.org/doi/pdf/10.1073/pnas.1604566113> (검색일: 2024. 1. 25.).
- Viseth, A. 2020. “Immigration and Employment: Substitute versus Complementary Labor in Selected African Countries.”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P/Issues/2020/07/31/Immigration-and-Employment-Substitute-Versus-Complementary-Labor-in-Selected-African-49610> (검색일: 2024. 2. 4.).

#### 〈1차 자료〉

- “Аренда квартир в Бишкеке выросла почти на треть.” <https://akchabar.kg/ru/article/nedvizhimos/arenda-kvartir-v-bishkeke-vyrosla-pochiti-na-tret/> (검색일: 2024. 3. 14.).
- “Аренда квартир в Бишкеке подорожала как минимум на 30%. Некоторые арендодатели выселяют местных граждан чтобы сдать жильё россиянам дороже.” <https://holod.me.dia/2022/09/27/arenda-kvartir-v-bishkeke-podorozhala-na-30-100-nekotorye-arendodateli-vyselyayut-mestnyh-grazhdan-chtoby-sdat-zhile-rossiyanam-dorozhe/#> (검색일: 2024. 3. 14.).
- “В Кыргызстан с марта переехали более 50 IT компаний из России, Беларуси и стран СНГ” <https://economist.kg/novosti/2022/10/03/v-kyrgyzstan-s-marta-relocirovalis-bolee-50-it-kompanij-iz-rossii-belarusi-i-stran-sng/> (검색일: 2024. 2. 2.).
- “<<Заоблачные суммы для узбекского рынка>>. где работают и сколько получают россияне в Узбекистане.” <https://uz.kursiv.media/2023-02-09/zaoblachnye-summy-dlya-uzbekskogo-rynka-gde-nabotayut-i-skolko-poluchayut-rossiyane-v-uzbekistane/> (검색일: 2024. 3. 27.).
- “ИТ-гигант созданный выходце из СССР, переманивает у России ИТ-шников и вывозит их в Узбекистан.” [https://cnews.ru/news/top/2022-04-19-sozdanniy\\_vyhodtsem\\_iz\\_cccp](https://cnews.ru/news/top/2022-04-19-sozdanniy_vyhodtsem_iz_cccp) (검색일: 2024. 1. 30.).

- “Как устраиваются на работу иностранцы в Узбекистане.” <https://hook.report/2022/05/work-in-uzbekistan> (검색일: 2024. 3. 27.).
- “Кыргызстан - Виза цифрового кочевника.” [https://dzen.ru/a/Y9Z-k0K8pnQDZff\\_?experiment=931375](https://dzen.ru/a/Y9Z-k0K8pnQDZff_?experiment=931375) (검색일: 2024. 1. 9.).
- “Минюст потребовал не нарушать права арендаторов съёмного жилья.” <http://spot.uz/ru/2022/10/11/rent-warning> (검색일: 2024. 3. 14.).
- “Нормальная практика: Куантыров о влиянии переехавших в Казахстан россиян на рынок труда” <https://nur.kz/politics/kazakhstan-economy/1990021-normalnaya-praktika-kuantyrov-o-vliyanii-pereehavshih-v-kazakhstan-rossiyan-na-rynok-truda/> (검색일: 2024. 3. 21.).
- “Понаехали тут: аналитик из Киргизии рассказал об отношении к Гражданам РФ.” <https://regnum.ru/article/3717430> (검색일: 2024. 4. 2.).
- “Потснят ли казахстанцев на линке труда приезжие россияне.” <https://caravan.kz/news/potesnyat-li-kazakhstancsev-na-rynke-truda-priezzhie-rossiyanee-885918/> (검색일: 2024. 3. 21.).
- “Почему в Кыргызстане дорожает недвижимость?” <https://rus.azattyk.org/a/32618745.html> (검색일: 2024. 3. 14.).
-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31 октября 2018 г. No. 622. “О Концеп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мигр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2019-2025 годы.” <https://garant.ru/product/s/ipo/doc/71992260/> (검색일: 2024. 1. 17.).
- “Цены на жильё в Ташкенте выросли с начала года почти на 20%.” <https://uz.kursiv.media/2022-11-23/ceny-na-zhile-v-tashkente-vyrosli-s-nachala-goda-pochti-na-20/> (검색일: 2024. 3. 14.).
- “Central Asia Economies Are Booming Thanks to Russia: Here’s Why.” <https://euronews.com/business/2023/10/04/central-asian-economies-are-booming-thanks-to-russia-heres-why/> (검색일: 2024. 2. 27.).
- “Central Asia Faces a Russian Migrant Crisis.” <https://foreignpolicy.com/2022/10/04/russia-putin-mobilization-central-asia-conscripts-flee/> (검색일: 2024. 1. 9.).
- “How Thousands of Highly-skilled Russians Support Uzbekistan’s Bid for Technology Development.” <https://bne.eu/how-thousands-of-highly-skilled-russians-support-uzbekistan-s-bid-for-technology-development-202099/?source=uzbekistan> (검색일: 2023. 1. 25.).

- “Inflow of Russians to Central Asia: Prices Rise, No Apartments for Ren.” <https://cabar.asia/en/inflow-of-russians-to-central-asia-prices-rise-noaprtments-for-rent> (검색일: 2024. 3. 6.).
- “Kazakhstan Tightens Entrance Rules for Foreigners.” <https://caspiannews.com/news-detail/kazakhstan-tightens-entrance-rules-for-foreigners-2023-1-18-28/> (검색일: 2024. 1. 9.).
- “Living in Fear of the Draft, Russian Emigres in Kazakhstan Have No Plans to Go Home.” <https://rferl.org/a/kazakhstan-russian-emigres-ukraine-war/32234453.html> (검색일: 2024. 1. 30.).
- “Poll: The Main Share of Russian Supporters in Kazakhstan Is over 60, Young People Are for Ukraine.” <https://demos.kz/poll-the-main-share-of-russian-supporters-in-kazakhstan-is-over-60-young-people-are-forukraine/?lang=en> (검색일: 2024. 1. 30.).
- “Russia’s Great Reverse Migration.” <https://foreignpolicy.com/2022/11/25/russia-uzbekistan-kyrgystan-putin-mobilization-great-reverse-migration> (검색일: 2024. 1. 17.).
- “Uzbekistan Lays out the Red Carpet for Fleeing Russian IT Specialist.” <https://eurasianet.org/uzbekistan-lays-out-red-carpet-for-fleeing-russian-it-specialists> (검색일: 2024. 1. 10.).
- “What Is a Refugee?” <https://unrefugees.org/refugee-facts/what-is-a-refugee> (검색일: 2024. 1. 3.).

## Abstract

## Economic Impact of Migrant Russian Refugees: A Case Study in Central Asia

Jiwon Park KOTRA

Due to the Ukraine war, young Russians have made large-scale migrations to nearby Central Asia to avoid conscription orders. These migrations have had positive and negative economic consequences for Central Asia. The positive aspect is that many of the young people who migrated, such as information technology (IT) engineers, have high-quality talents, and their influx is helping the IT development sector promoted by Central Asian countries. Second, their influx is boosting the local consumption and production sector, some of which are engaged in trade with Russia, contributing to the increase in Central Asia's exports to Russia. There are also negative consequences of migration, with a significant increase in real estate sales prices and rents, mainly in major Central Asian cities where they have flowed in large numbers. In addition, some introduced professional jobs, such as IT professionals, have encroached on high-end local jobs. However, while negative factors are not highlighted and quickly diluted, positive factors, such as the effect of increasing consumption that refugees create while working steadily in the region and the IT development promoted by each Central Asian country, may appear long term over time.

**Keywords** | Russian Refugees, Migration, Central Asia, Uzbekistan, Kazakhstan